

서 평

혼종적 근대성으로서 한의학:
김종영 (2019) 『하이브리드 한의학』 ■

김기홍*

*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전자우편: edinkim@postech.ac.kr

김종영 (2019),

『하이브리드 한의학: 근대, 권력, 창조』, 돌베개.

1. 근대성의 재해석으로서 하이브리드 한의학

한의학의 근대화 과정을 포함해서 한국의 메디컬스케이프(medicalscapes)라 부를 수 있는 생의학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한 책에 담아내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의학사 분야에서 한의학을 의학사의 연구영역에 포함시켜 분석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며 상당히 생산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방성혜, 2012; 신동원, 2004; 2013; 2014; 여인석 외, 2018; 연세대학교 의학사연구소, 2008; 황상익, 2013).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 의학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으로 역사의 분석대상으로 한의학을 포함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서구 의료체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지배적인 의료관리체계였던 한의학이 식민시기와 해방 이후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그 지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볼 수 있는 연구 작업을 찾기 힘들었다. 과학사회학자인 김종영이 발표한 『하이브리드 한의학(2019)』은 사회학과 과학기술학적 시각으로 다양한 사회적 세팅에 참여한 한의학(비인간) 행위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한의학이 하나의 의료체계로 안정화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10여 년 동안 사회학자로서 한국의 지식 엘리트의 문제를 다룬 『지배받는 지배자(2015)』와 시민과 지식 민주주의의 문제를 분석한 『지민의 탄생(2017)』과 같은 노작을 통해 예리한 사회학적 분석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의 학문연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의학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관련된 결과물을 기다려오던 차에 『하이브리드 한의학』은 과학기술학과 의료사회학은 물론 의학사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연구는 그가 박사과정 재학 당시 수행했던 연구

를 토대로 발전시켜온 20년에 걸친 연구를 결산하는 중요한 결과물이다. 이 연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단순히 지금까지 사회학이나 과학기술학의 관심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한의학” 영역을 분석주제로 포함시켰기 때문일 뿐 아니라, 한의학이라는 고전적이고 전통적 분야에 현대 과학기술적 개입이라는 현상을 성공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근본적 목적은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창을 통해 한국의 근대화(또는 근대성)를 설명하려는 것”이다(12쪽). 근대성에 대한 고찰, 특히 한국사회의 근대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가 다양한 분석틀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는 역사적 산물로 고정된 개념인 근대성의 문제를 다루거나 다양한 해석의 산물로서 다중적 근대성에 대해 논의해왔다(Eisenstadt, 2000). 하지만 저자는 근대성에 관해 매우 다른 관점을 제안한다. 근대성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근대성을 총체적이고 단일한 거대변화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근대성과 사회를 하나의 단일한 통일된 전체가 아니라 변동 가능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결합하는 “변화의 집합체”로 볼 때 그림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325쪽). 근대성에 대한 재해석의 움직임은 과학기술학 분야 이외에도 다른 학문분과에서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인류학 분야에서 진행된 아시아 근대성에 관한 연구는 『하이브리드 한의학』의 근대성에 대한 유사한 재해석을 시도하고 있다(이현정·김태우, 2017). 이처럼 근대성의 개념에 대한 재해석은 다양한 사회물질적 현상을 재해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며 이번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작업임이 틀림없다.

2. 이론적 서술적 특이성

이 연구는 과학기술학계에서 토론할 수 있는 몇 가지 흥미로운 이론적 논의와 서술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저자는 세 가지 흥미로운 이론적 제안을 한다: 창조적 유물론과 권력지형(powerscapes), 그리고 행위체가 그것이다. 이전 연구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저자는 기존 이론적 논의를 연구사례에 적합하게 새로운 이론적 개념을 구성하는 훌륭한 능력을 보여주었다(김종영, 2013; 김지원·김종영, 2013).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창조적 유물론이나 권력지형과 같은 개념도 최근 사회과학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유물론이나, 아르준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가 근대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했던 다섯 가지 지형(scapes)의 개념을 재해석한 결과다(Appadurai, 1996; Coole and Frost, 2010; Dolphijn and Tuin, 2012; Fox and Alldred, 2016). 기존 신유물론과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서 제기하는 인간-사물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창발성(emergence)과 생기성(vitality)의 문제를 결합하여 개념화한 창조적 유물론은 한의학의 과학화 과정에서 사회물질적 네트워크의 결합형태(asmblage)가 새로운 창발성의 형태의 생성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그리고 권력지형은 한의학/서양의학, 희생자/가해자, 제국주의/식민지 등의 이분법을 넘어서 총체적인 권력의 다층적 형태가 보여주는 동학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27쪽). 마지막으로 “행위체”는 행위주체로서 물질 행위자를 포함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또한 행위체라는 개념은 행위를 일관된 전체로 보거나 사회구조로 환원시키는 시도를 넘어서 고안된 개념이다(28쪽).

세 가지 이론적 개념은 일정정도 과학기술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다양한 사회물질적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뒤에 논의할 것처럼 이 개념들이 실제 한의학의 근대화과정이라는 사례에 적합한 이론적 프레임인가에 대한 평가는 별개의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 존재하는 이론적 개념을 아무런 재해석을 거치지 않고 사용해온 학문적 경향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저자의 글쓰기 방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통적인 이론소개-맞춤사례적용-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보통 각 챕터에서 보여주는 논의 전개는 어느 정도 묘사적이고 문학적이다. 하지만 글의 전개 중간에 과학기술학의 중요한 개념을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독자에게 명쾌하게 소개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독자들의 거부감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3. 역사적-과학기술학적-정치적 혼종으로서 한의학

『하이브리드 한의학』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연구의 목적과 이론적 개념적 정의를 재개념화하는 작업을 통해 앞으로 전개할 사례연구에 관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전통적인 의학사적 내러티브의 전형적 구조를 보여준다. 식민시기의 한의학의 붕괴과정과 해방이후 주변화 과정을 역사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전형적인 과학기술학적 고찰을 하고 있다. 다양한 과학기술학적 관점을 동원하여 한의학의 과학화와 실험실연구, 봉한학의 시각화, 퓨전치료와 같은 사례를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은 근대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좀더 정치적인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장과 3장에서는 제국주의에 의한 침탈과 식민지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주류 의료관리체계로서의 한의학이 붕괴하고

주변적이고 열등한 비과학적 행위로 전락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해방과 더불어 한의학은 비록 주변부적 지위이지만 그 명맥을 유지한다. 한의학이 의료관리체계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인 1990년대의 한의학과 약학계의 충돌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한약 조제권을 둘러싼 약사 조직과의 충돌과 분쟁과정에 대해 사회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본격적으로 저자가 과학기술학적 분석을 적용하는 부분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과학화”의 전략을 다루는 4장과 “경락”이라는 개념을 시각화하고 해부학적으로 존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른바 “봉한학”의 실험과정을 다루는 5장이다. 이미 식민시기 이후 보건의료체계의 기초로 자리 잡은 서양의학의 압도적인 정치지형에서 한의학이 하나의 의학 체계로 인정받기 위해 사용한 전략이 바로 “과학화”이다. 1990년대 말부터 진행된 한의학 실험실 연구는 16세기 이래 과학이 그 실증적이고 경험적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실험실을 통한 연구전략과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다른 과학기술학의 다양한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실은 과학행위의 공간이며 대중에게 자연이 재현될 수 있는 인공적 시스템임을 알리는 설득의 공간이기도 하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행위를 통해 표준화되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줌으로써 한의학은 마침내 이른바 “과학자본”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133쪽). 저자는 한의학 실험실에 대한 참여관찰연구를 통해 어떻게 행위자들이 “역사를 가진 문화체계”로서 실험실을 구성하는지를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각기 다른 배경지식과 역량을 가진 연구자들이 모인 한의학 실험실에서 혼종적 성격의 연구를 “생산”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참여관찰연구와 혼종적 행위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 한의학 실험실에 대한 분석은 다른 실험실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좋은 선례가 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한의학의 과학화와 실험실의 역할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구체적이고 세밀한 실험실에 대한 묘사와 실험자에 대한 인터뷰는 단일 사례연구로서 그 학술적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이 실험실에 대한 참여관찰이 한의학이 과학 분과로서 자리잡는 데 실험실 연구가 어떻게 기여했고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듯하다. 저자가 보여주는 실험실의 실험자, 실험기구, 실험재료가 결합하는 사회물질적 네트워크의 결합체는 여타 일반 실험실에서도 발견되는 일상적 현상이다. 그렇다면 한의학 실험실의 사회물질적 네트워크의 특이성은 무엇인가? 저자는 한의학 실험실과 실험자들의 상호교육과정에서 혼종적 연구자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창발적 속성이 나타난다고 선언한다(172쪽). 그러나 어느 공대나 의대의 실험실에서도 이러한 혼종성과 실험자들 사이의 암묵지적 상호작용은 일상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혼종성과 암묵지 교환을 통한 실험자와 지식의 형성이 한의학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실천과 무엇이 다른가를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했다.

5장에서 다루고 있는 봉한학 연구의 재탄생 과정은 과학기술학자들에게 좀 더 흥미로운 사례이다. 해부학적 실체로서 경락을 탐구하고 시각화하려는 시도는 관찰을 통해 무질서한 자연현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흥미로운 과학기술학적 주제임이 분명하다. 시각화는 해석의 과정이고 자연현상이 갖는 해석적 유연성이 드러나는 과학실천의 최전선이기도 하다(Knorr-Cetina, 1999; Lynch and Woolgar 1990). 1960년대 북한에서 주목받았던 봉한학이 2000년대 서울대의 실험실에서 재시도되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봉한관”이라 불리는 경락이라고 생각되는 해부학적 실체를 발견하는 과정은 해석적 유연성의 전형적인 안정화 과정이기도 하다. 물론 봉한관의 발견이 봉한학을 둘러싼 논쟁의 완전한 종결로 이어지지 않았다. 봉한관의 발견은 또 다른 해석적 유연성의 대상이 된다.

6장은 한의학과 양의학이 한 공간에서 조우하는 방식인 협진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진료모델의 생산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서로 매우 이질적이고 상호배제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한 공간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기존의 의사-환자의 관계에 관한 상식을 파괴하는 효과가 있다. 저자는 양한방협진 행위의 비균질성과 저항 그리고 표준화 및 안정화 과정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물론 양한방협진이 다양한 병원에서 실행되는 것은 아니다. 경희대 의대라는 제도적 공간적 조건에서 이루어진 매우 특이한 사례이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사례가 될 수 있다. 양한방협진은 단순히 상이한 행위자의 합의결과가 아니다. 그보다 제도적-법적-사회물질적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양한방협진을 이해해야 한다.

7장에서 다루고 있는 한방 신약개발이 하나의 바이오 경제 체계가 될 가능성은 과학기술학의 중요한 주제이다. 스티렌의 개발과 같은 천연신약개발에 대해 저자는 전형적인 바이오경제의 한 사례로 보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는 한의학의 바이오경제화는 1990년대 한의학계가 겪은 엄청난 갈등 이후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한의학이 제약분야에서도 다른 약물 연구와 동등하게 경쟁하고 독자적인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조건의 변동과 함께 천연신약성분이 대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제도적 법적 변화뿐 아니라 문화적 변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저자가 지적했듯이 한의학의 바이오경제화 과정은 몇 가지 설명요인을 동원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다. 대신 권력지형의 맥락에서 생명공학과 한의학이 결합된 결과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극히 타당한 제안이 될 수 있다(314쪽).

4. 권력지형은 근대성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가?

이 책은 마지막 결론으로서 근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근대성은 고정된 총체로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근대와 전근대, 과학과 전통의학, 서구와 동양과 같은 이분법에 근거한 사고는 결국 이현정과 김태우가 아시아의 의료근대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제기한 문제, 즉 타자성과 재현성의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이현정·김태우, 2017:14). 이분법적인 접근법은 항상 ‘스스로 재현할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 재현되어야만 하는 주체들’을 생산해왔다. 이 책의 저자인 김종영은 근대성은 항상 최종해석이 불가능한 열린 개념이며 복합적이고 혼종적, 중층적이고 모순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321쪽). 그는 일관되게 ‘세트들의 세트’ 즉, 다양한 사회물질적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의 결합체로 근대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25쪽).

저자는 한의학의 과학화 또는 근대화 과정은 단순히 서양과 동양의 충돌이나 물질과 정신의 충돌이 아닌 각기 다른 인프라 권력 즉, 권력집합체의 충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328쪽). 이 논의의 근거가 되는 것은 과학기술학자인 앤드류 피커링(Andrew Pickering)이 주장한 이른바 물질적 공약불가능성(material incommensurability)의 개념이다(Pickering, 1995). 그는 토마스 쿤이 제시한 공약불가능성의 문제를 물질 영역으로 확대한다. 쿤에 의하면 각기 다른 패러다임에 속하는 행위자의 인식 체계는 서로 소통불가능하다. 패러다임은 균질적이고 총체적인 인식체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피커링은 인식과 해석의 영역을 넘어서 물질 세계에서 이러한 공약불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집합체의 불균형성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즉 한의학과 양의학의 충돌은 이러한 사회물질적 인프라의 충돌이었으며 한의학이 의학에서 한

분과로 안정화되는 것은 인프라의 확대와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었다(328쪽). 한의학의 근대성은 식민화된 행위자가 사회물질적으로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주체로 전환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과정은 동일하고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신 근대성은 동일하고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중첩적이고 불연속하며 우연성의 결과라는 결론에 이른다.

사회물질적 집합체의 결합과 권력지형으로서 한의학의 근대화에 대한 논의는 과학기술학 뿐 아니라 의학사와 의료사회학에서 중요한 학문적 성과이다. 그리고 한의학의 사례를 통해 보여주는 근대성의 문제와 사회물질성, 권력지형과 같은 논의는 이론적으로도 흥미로운 개념적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학자로서의 실험정신과 연구영역의 확장을 향한 저자의 도전은 독자에게 신선한 자극이 된다. 이 연구는 전체적으로 흠집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흥미롭고 일관성 있는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흠집을 의도적으로 찾는다면 몇 가지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우선 저자가 제시한 이른바 “창조적 유물론”이 갖고 있는 창발성이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창조적 유물론”의 근간이 되는 개념은 신유물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마누엘 데란다(Manuel DeLanda)의 ‘창발적 속성(emergent properties)’이다(DeLanda, 2010). 사회물질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결합체는 특정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지 않는 전체의 속성들이 부분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게 창출된다”(46쪽). 데란드의 창발적 속성은 신유물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결합체의 잠재성과 연결된다. 하지만 이것은 예측불가능하게 발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창조”의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아마 창조라는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의도성(intentionality)의 문제는 데란다가 다른 신유물론적 개념과 양립하기 힘들 수 있다. 물론 개념의 문제는

추상적 수준에서 해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한의학의 근대화과 과학화과정에서 보여주는 창발적 속성을 명시적으로 이번 연구가 보여주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힘들다.

또한, 한의학이 보여주는 중첩적이고 우연적이고 비환원적 근대성의 모습을 굳이 새로운 이론적 개념인 창조적 유물론이나 권력지형, 그리고 행위체라는 새롭고 복잡한 개념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미 한의학의 과학화와 근대화과정에서 보이는 혼종적이고 모순적 성격은 탈식민주의적 논의에서 충분히 논의되었다.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에서 보여주는 특성들, 근대성과 전통적 성격의 혼종성 그리고 중층적 특성은 탈식민주의의 중요한 학자인 호미 바바(Homi Bhabha)가 제기한 ‘혼종성(hybridity)’에서 이미 논의된 개념이다(Bhabha, 2004).

이 연구는 저자의 20년에 걸친 한의학에 대한 학문적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연구결과이다. 한의학의 발전이라는 어찌 보면 단순한 사례를 통해 다양한 과학기술학적 이론적 개념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연구자가 갖고 있는 훌륭한 분석능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연구는 한국 과학기술학계가 진화하고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종영 (2013), 「Networked publics, multi-tentacled participation, and cooperative expertise in risk politics: American beef and the Korean candlelight protest」,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197-242쪽.
- 김종영 (2015),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유학과 한국엘리트의 탄생』, 돌베개.
- 김종영 (2017), 『지민의 탄생: 지식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지성의 도전』, 휴머니스트.
- 김종영 (2019), 『하이브리드 한의학: 근대, 권력, 창조』, 돌베개.
- 김지원·김종영 (2013), 「4대강 개발과 전문성의 정치」, 『환경사회학 연구 ECO』, 제17권 제1호, 163-232쪽.
- 방성혜 (2012), 『조선, 종기와 사투를 벌이다』, 시대의 창.
- 신동원 (2004), 『호열자, 조선을 습격하다』, 역사비평사.
- 신동원 (2013), 『호환마마 천연두』, 돌베개.
- 신동원 (2014), 『조선의약 생활사』, 들녘.
- 여인석·신규환·이현숙·김성수·김영수 (2018), 『한국의학사』, 역사공간.
- 연세대학교 의학사 연구소 (2008), 『한의학, 식민지를 앓다』, 아카넷.
- 이현정·김태우 엮음 (2017), 『의료, 아시아의 근대성을 읽는 창』,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황상익 (2013), 『근대의료의 풍경』, 푸른역사.
- Appadurai, A. (1996),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habha, H. (2004),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 Coole, D. and Frost, S. (2010), *New Materialisms: Ontology, Agency and Politic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Dolphijn, R. and Tuin I. eds. (2012), *New Materialism: Interview & Cartographies*, Ann arbor: Open Humanities.

- Eisenstadt, S. (2000), “Multiple Modernities”, *Daedalus*, Vol. 129, pp.1-29.
- Fox, N. and Alldred, P. (2016), *Sociology and the New Materialism: Theory, Research, Action*, London: Sage
- Knorr-Cetina, K. (1999), *Epistemic Cultures: How the Sciences Make Knowled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Lynch, M. and Woolgar, S. eds. (1990), *Representation in Scientific Practice*, Cambridge, MA: MIT Press.